

제81차 IFLA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역동적인 도서관 : 접근, 발전, 변화

Dynamic Libraries : Access,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 공공도서관협의회 대표단 참가 결과 보고

– 제81차 IFLA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15–21 August 2015, Cape Town, South Africa

## 공공도서관협의회 대표단

# 차례

<b>I. 대회개요</b> .....	<b>3</b>
1. 참가목적 .....	3
2. 개요 .....	3
3. 대회 참가자 .....	3
4. 주요내용 .....	4
5. 최근 개최지 및 주제 .....	4
6. 대표단 참가 일정 .....	4
<b>II. 국제도서관 연맹</b> .....	<b>6</b>
<b>III. 대표단 주요활동</b> .....	<b>7</b>
1. 한국어 참가자 모임 .....	7
2. 한국인의 밤 .....	7
3. 대회 개막식 .....	8
4. 전시회 개막식 .....	9
5. 포스터세션 .....	9
6. 문화의 밤 .....	10
7. IFLA 총회 .....	11
8. 폐막식 .....	11
<b>IV. 참가 프로그램</b> .....	<b>12</b>
1. Session 75 .....	12
2. Session 76 .....	15
3. Session 99 .....	17
<b>V. 도서관 견학</b> .....	<b>19</b>
1. 국립도서관 .....	19
2. 센트럴도서관 .....	20
3. 책센터 .....	21
4. 하라네도서관 .....	22
5. 엘지스리버도서관 .....	22
6. 벨빌도서관 .....	23
<b>VI. 연수를 마치며</b> .....	<b>23</b>

# I 대회개요

## 1. 참가목적

- IFLA 회원국 도서관 전문가들의 협력, 조사, 연구 발표 분과 회의참석과 발표로 성과물의 공유 기회 및 새로운 지식 습득
- 세계 도서관의 최근 발전 동향 파악 및 국내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활동 홍보
- 도서관을 방문하여 견학하고 도서관 주요 업무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서관 경영의 아이디어 창출 및 도서관인들의 이해 증진

## 2. 개요

- 행사명 : 2015 제81차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주 제 : 역동적인 도서관 : 접근, 발전, 변화  
(Dynamic Libraries : Access,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 기 간 : 2015년 8월 14일(금) - 8월 24일(월) / 10박 11일(기내 3박 포함)
- 장 소 : 남아프리카공화국 / 케이프타운 / 케이프타운 컨벤션센터



## 3. 대회 참가자

지역	도서관명	참가자	직위	직급
부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김경자	전임관장	부이사관
인천	인천미추홀도서관	한수미	팀장	사서6급
광주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안미영	관장	사서4급
충북	충북중앙도서관	홍준기	관장	부이사관
충남	서산시립도서관	조원향	팀장	사서6급
경북	경북안동도서관	홍분선	계장	사서6급
계	6개 지부 6명 참가			

## 4.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8월 15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LA 대회 참가자 등록</li> <li>· 한국어 참가자 모임</li> <li>· 한국인의 밤 행사</li> </ul>	
8월 16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li> <li>· 43개 주제분과별 주제발표</li> <li>· 전시회 개막 및 오프닝 파티, 리셉션</li> </ul>	
8월 17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개 주제분과별 주제발표</li> <li>· 포스터 세션</li> </ul>	
8월 18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개 주제분과별 주제발표</li> <li>· 포스터 세션</li> </ul>	
8월 19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개 주제분과별 주제발표</li> <li>· 총회</li> <li>· 도서관 방문</li> </ul>	
8월 20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개 주제분과별 주제발표</li> <li>· 도서관 방문</li> <li>· 폐회식</li> </ul>	
8월 19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방문</li> </ul>	

## 5. 개최지 및 주제

년도	개최지	대주제
2013	싱가포르, 순택	미래의 도서관 : 무한한 가능성
2014	프랑스, 리옹	도서관, 시민, 사회 : 지식의 융합
2015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역동적인 도서관 : 접근, 발전, 변화
2016	미국, 콜럼버스	연결, 협력, 커뮤니티
2017	폴란드, 브로와츨라포	-

## 6. 대표단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상세 일정
제1일 8/14(금)	인천		09:00	인천국제공항 모임
		TK 89 (터키항공)	12:05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1시간 50분]
	이스탄불		17:55	이스탄불 도착 환승수속
제2일 8/15(토)		TK 40	01:10	이스탄불 출발[비행시간 약 9시간 40분]
	요하네스버그		09:50	요하네스버그 도착 환승수속
		TK 40	10:50	요하네스버그 출발 [비행시간 약 2시간 20분]
	케이프타운		13:10	케이프타운 도착
		전용차량	15:0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숙소: Southern Sun Waterfront, 7일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등록
			18:30	WLIC 한국어 언어별 모임 참석 한국도서관인의 밤
제3일 8/16(일)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2015케이프타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2015년 8월 15일 ~ 21일]
제4일 8/17(월)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2015케이프타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2015년 8월 15일 ~ 21일]
제5일 8/18(화)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2015케이프타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2015년 8월 15일 ~ 21일]
제6일 8/19(수)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2015케이프타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2015년 8월 15일 ~ 21일]
제7일 8/20(목)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2015케이프타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2015년 8월 15일 ~ 21일]
제8일 8/21(금)	케이프타운	개별이동	전일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도서관 방문 [IFLA 주관]
제9일 8/22(토)	케이프타운	전용차량	12: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TK 41	15:40	케이프타운 출발[비행시간 약 2시간]
	요하네스버그		17:40	요하네스버그 도착 환승수속
		TK 41	18:45	요하네스버그 출발 [비행시간 약 9시간 35분]
제10일 8/23(일)	이스탄불	전용차량	05:20	이스탄불 도착
			21:00	이스탄불 도서관방문 및 문화탐방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제11일 8/24(월)	이스탄불	TK 90	00:45	이스탄불 출발[비행시간 약 9시간 50분]
	인천		16: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귀가

## II

## 국제도서관연맹

- 공식명칭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 설립목적
  - 도서관 활동과 도서관 관련 산업 및 학문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상호 이해의 증진과 협력, 조사, 연구 및 개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국제적 준칙의 개발 및 보급
- 설립연도 : 1927년
- 본부소재지 : 네덜란드 헤이그
- 회원규모 : 150개국 1,500개 기관(2013년말 기준)
- 주요조직 : 총회, 사무국, 이사회, 전문위원회(5개 부회, 43개 주제별분과)
- 전략프로그램(Strategic Programmes)
  - ALP(Action for Development through Libraries Programme)
  - CLM(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
  - FALFE(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 Committee on standards
  - PAC(Strategic Programme on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 UNIMARC Strategic Programme
- 공동사업(Joint Activities)
  - Campaign for the World's Libraries(@your Library)
  - Digital Libraries
  - IFLA/IPA Steering Group
  - Libraries, Archives, Museums, Monuments and sites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지부사무소 : 3곳
  - 아프리카 지부 :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부 : 싱가포르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부 : 브라질
- 공식 언어 :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 IFLA 정규회원으로 가입

### ① 한국어 첫 참가자 모임(8월 15일(토) 18:30, Room 1.64)

한국어 참가자 모임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공식 프로그램의 대회 참가단과 한국어에 관심있는 참가자들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8월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케이프타운 컨벤션센터 Room 1.64호에서 열렸다. 한국도서관협회 손지혜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어 참가자 모임에는 곽동철 한국도서관협회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실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서울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신경애 관장의 참가 소감 인사가 있었다. 도나 쉬더 IFLA 차기(2016-2017)회장이 참석하여 한국인들의 대회 방문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인사를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재선 자료관리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각자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한국도서관협회 손지혜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팀장이 WLIC에 대한 소개와 대회기간 동안 활동 상황 및 참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② 한국인의 밤(8월 15일(토) 20:00, Southern Sun Waterfont Hotel 1층)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에 참가한 한국인 참가자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밤”은 Southern Sun Waterfont 호텔 내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참가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동철 한국도서관협회장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동안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일정기간 중 많은 도서관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한국인의 밤은 참가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 방안과 특색있는 사업 등을 소개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서로를 가졌다. 다과를 즐기며 답소를 나누는 친근한 친교의 시간은 대회 일정기간 같이 동행하고 소통하며 움직여야 할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 3] 대회 개막식 (8월 16일(일) 10:30, Exhibition Hall 1&2)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케이프타운 컨벤션센터 Exhibition Halls 1&2 홀에서 있는 오프닝 세션은 IFLA 총회에서 준비한 공식행사로 전 세계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가한 도서관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축하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 되었다.

개회식에서 능수능란한 제스처와 코믹한 어투의 사회자가 청중을 이끄는 분위기에 참가들은 푹 빠졌다. 이어 뛰어난 미모를 갖춘 비키 샴슨의 가창력 있는 선율로 We are one... one people...을 외치는 노래는 가슴에 심금을 울렸다. 그랜드 피날레 행사로 엠젠시 청소년 합창단의 경쾌한 춤 솜씨와 노래는 참가자의 기분을 고조시켰다. 시니카 시필라 IFLA 회장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선언하는 인사말이 끝나자 도서관 정보서비스 디렉터 세라메시 몰라와 회장과 그리고 로도스 대학교 도서관 서비스 디렉터이신 유잘라 샷구르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Gcina Mhlophe가 영상과 함께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는 행사장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세계 각국에서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세계의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된 사서 그리고 도서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체험할 수 있는 뿌듯한 공식 행사였다.



### 4] 전시회 개막식 (8월 16일(일) 16:00, Exhibition Hall 3&4)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전시장에는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화 관련 업체인 Elsevier사, OCLC사 등과 주요단체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미국도



서관협회(ALA) 등 여러 기관에서 도서관 관련 서비스 및 홍보 관련 부스를 설치하여 각국의 새로운 도서관 관련 첨단 신기술들을 전시했다. 차기 IFLA 회장 도나 쉬더의 전시장 개막을 알리는 환영사를 마치자 기념 파티가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속악기로 공연하는 공연단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리상으로 아주 먼 관계로 전시장에 출품된 상품들은 도서관 기기와 전시 부스가 다양하진 않았다. 전시장에 선보이는 장비는 원문 또는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스캔 장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독일의 새로운 장비들이 독보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도서관 자료들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의 도서관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도서관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각 나라별 또는 케이프타운 도서관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벌이고 있는 홍보용 부스도 전시장에 도서관 변천사와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전시장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산품들이 전시 또는 판매도 곳곳에서 이루어 졌다. 카펫이나 실뜨기 부스까지 설치해 놓고 있어 케이프타운의 정서를 느끼게 했고 잔잔한 정감을 주었다. 목각품과 구슬 공예품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전시관 내부에는 카페테리아 인터넷 카페 등으로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5 포스터 세션(8월 17일(월) 12:00~14:00, Exhibition Hall 3&4)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포스터 세션은 8월 17일(월)부터 8월 18일(화)까지 전시된 포스터 세션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꽃이라고도 말한다. 펼쳐져 전시되고 있는 포스터들이 각양각색 아름답기도 하고 포스터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그 도서관의 운영의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출품한 도서관 직원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

각 나라에서 출품된 포스터 세션을 보면 그 나라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방향과 특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2010년 6명의 발표자와 그리고 해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준비한 포스터 세션과 해양박물관에서 준비하던 포스터 세션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올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포스터 세션에서는 한

국원자력연구원구원이신 이지호 박사가 “전문도서관의 블루오션 전략 개발을 위한 라키비움: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사람만이 참가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출품한 세션들이 전시공간을 이루고 있었고 남아공에서 출품한 포스터 세션들이 많아 개최국으로서의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아래 오른쪽 맨 마지막 포스터 작품이 남아프리카에서 출품한 “나의 디지털 메모리 툴킷”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로 폐막식장에서 포스터 시상을 받은 작품이다.



## ⑥ 문화의 밤(8월 18일(화) 18:00, Exhibition Hall 1)

참가 3일째 되는 날 밤, 케이프타운 컨벤션센터 Exhibition Hall에서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문화의 밤’이 개최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단원들은 ‘문화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추최 측에서 준비한 음식과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남아공의 전통악기와 음악 연주로 행사장이 화려하고 뜨겁게 만들어졌다. 대중가수의 메들리 라이브 공연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문화의 밤에 참가한 3천여명의 도서관 관계자 및 사서들은 음식과 음료를 들면서 국경을 뛰어 넘는 마음과 마음이 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음악은 세계인이 한데 어울어져 심취해 지는 신비함이 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은 문화의 밤 행사장 안에서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도 모두들 흥겨운 음악으로 함성과 함께 고조된 분위기가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화의 밤 행사장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와 박자를 맞추며 춤동작으로 율동하는 제스처어는 행사장을 온통 ‘We are the one’으로 만들었다.



## 7 IFLA 총회 (8월 19일(수) 16:15, Auditorium 1)

2015 IFLA 총회는 회장 인사말, 정족수 확인, 의제의 선정, 이전 회의록 발표, 2014년 주요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2014년 재무 회계 프리젠테이션, 차차기 회장 당선자 투표 결과 발표, 다음 총회 개최 승인 및 폐회의 순으로 개최되었다. 각종 IFLA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으며 IFLA 총회는 참석한 각 나라 도서관협회장에게 참석 및 투표권이 주어진다.



## 8 폐막식 (8월 20일(목) 16:15 Exhibition Hall 2)

2015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의 환송의 인사말씀과 2016년 세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인 미국 콜롬보스 조직위원장을 초대하여 인사말씀이 있었다. 2015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폐회식에서는 대회 각 부문별 시상식이 있었다. 2016년 제82차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 개최지인 미국 콜럼버스 영상 소개와 콜럼버스 대회 지역 관련자 인사말씀과 선물 교환이 있었다. 이어 제83회 2017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발표가 있자 폴란드 도서관 관계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미국 국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IFLA 대회 조직위원장이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게 된 감사의 인사와 도나 슈더(Donna Scheeder) 차기 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폐막식이 진행되었다, 제81회 201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112개국에서 참가했고 세계 각국에서 3,190명이 등록했던 225개의 주제들로 도서관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막을 내렸다.



## ① Session 75. 21세기 중반 현대 : 비전있는 도서관 디자인 - 도서관 건물과 장비

(8월 16일(일) 13:45-15:45, Exhibition Hall 1&2)

### 1) 도서관의 오디오 공간 통합 설계 / 핀란드, 반타 시립도서관

핀란드 반타 시립 도서관 4개에서 체계적인 오디오 공간 공동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서비스 디자인과 공동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과 고객은 함께 잠재적인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도서관 공간 디자인을 만든다.

이러한 기술 등을 통해서 각 단위의 운영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에 이용자의 경험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임팩트있는 변화를 몇가지 프로세스 예를 들면 서비스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 핀란드에 있는 반타 시립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한다. 선택된 방법은 직원과 이용자,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각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디자인 프로세스이다.

초기단계로 Hakunila 사례로 배경 데이터는 총 두 그룹에서 약 500명을 조사하여 응답 받았다. 그 중 특별히 재설계를 위해 선반논리와 검색 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선반은 전통적으로 목록작성기반 (cataloguing-based) 시스템의 논리에 따랐지만 최근 수십년간 향상된 서비스와 고객지향의 목적을 더욱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선반논리 뿐 아니라 Hakunila 지역에서 카페테리아의 부족과 도서관에 대해 명백히 정의된 것이 부족했다.

피드백의 결과로 많은 서비스 데스크는 하나로 줄었고 조용한 공간이 계획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많은 컬러가 공간에 사용 되었다. 비디오 게임을 위한 두개의 큰 스크린이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설치되었고, 새롭게 콩주머니와 흔들의자가 좌석으로 설치되었다. 공동디자인의 대부분의 변화는 새것보다 이전의 것들을 새롭게 탈바꿈 하거나 재료를 재활용하여 사용했다. 일년 후, 첫번째 변화로 도서관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포인트가 되었고 각 이용자의 부분의 요구에 따라 조용함과 시끌벅적함, 칙칙함과 활기참이 공존했다.

두번째로 Tikkurila 활성화 오디오 공간성 확성 사례이다. Tikkurila는 “ket 미래 개념”으로 청소년 부분의 요구에서 전체 부서의 미래를 예측하였고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경로와 터치 포인트는 이용자와 직원을 통해 확인하였고 자동 대출 단말의 사용을 중요한 터치 포인트 사이에 배치하였다. 고객에게 고객 자신의 공간임을 느끼게 하여 더 오래 머물게 하도록 하며 더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였고, 디지털화 장비, 녹음 스튜디오 같은 장비에 새로운 옵션을 설치해서

그저 시간을 보냈던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소리를 완충 시킬 수 있는 가구를 선택했는데, 도서관에서의 소음을 충분히 완화 시켰고 어른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었다. 이 변화에는 7000 Euro가 사용 되었는데, 아웃소싱 컨설턴트나 다른 직원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배우기 위한 직원의 의지와 기존에 있던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세번째로 열린공간으로 Point도서관 사례이다. 파일럿 테스트의 또다른 유형으로 선정된 Point도서관은 지속적인 '열린 도서관' 셀프 서비스 계획을 실행하였는데,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고객의 도서관 이용 시간을 증가 시키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감독 없이 열린 도서관을 유지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지만, Point도서관에서는 고객이 더 '그들의 공간'으로 존중하고 도서관을 더 소중하게 다룸으로써 위험한 생각에 대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2) 모든 리더 도서관, 모든 도서관의 리더,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리더 도서관에 대한 라이브러리 설계 / 싱가포르, 국립싱가포르도서관

도서관 설계는 세가지 주요 성과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재구성한다. 첫째로, 공간을 차별화 하여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독서를 고무 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로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와 우리가 통합될 수 있는 독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도서관 내에서 접근성을 증가시켜 장애인의 물리적인 이동성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를 위해 더 나은 자료 탐색과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최근 두 도서관 orchard library(OCPL)와 Sembawang Public Library (SBPL)은 이 도서관의 서로 목적과 초점이 다르다. OCPL은 교외 주거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소매가 밀집 되어있고 국제 관광 명소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을 위해 설계 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해 SBPL은 주거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2000년에 처음 오픈을 한 후 2014년에 가족단위의 고객을 위해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NLB의 도서관 계획 프로세스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소통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이 포함 된다. 이러한 분석은 인구분석, 인구통계, 도서관 회원의 대출 데이터 및 도서관의 지리적 분석이 포함되며 여기에 이용자의 인터뷰, 설문조사 및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다.

인터뷰는 사용자의 요구와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 실행되었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NLB에 대해 기회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심층 인터뷰는 백명 이상의 Orchard Road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행되었다.

두번째 단계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천명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프로토타입의 전시의 일환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많은 책 애호가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욕망을 표현했는데, 도서관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그들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도서관 이용자가 몰입을 경험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계하고 전통적인 도서관에 기초하여 기능적인 디지털 공간과 잘 융합 시켜야 한다.

## **2] Session 76.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에 접근, 개발 및 변환을 위한 동적 협력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8월 16일 (일) 13:45-15:45, Auditorium 1)

### **1) 잠비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연료 / 잠비아, Lubuto Library**

파트너십 올해 Lubuto도서관 파트너들로 바뀌어 불리어지는 Lubuto도서관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새 이름은 도서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10년전 Lubuto가 설립된 이래로 파트너십은 우리 일에 생기를 주고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Lubuto 파트너십은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이 보장된다.

그것은 이전에 청소년 서비스로 이해하고 지속되어 온 협력과 제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환경에서 특히 중요했다. 개인 및 공공부문의 협력은 잠비아와 미국의 Lubuto 조직뿐만 아니라 Lubuto가 만든 개개의 도서관의 협력에서 필요 되어진다.

주요 협력관계는 도서관의 생성과 우리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 지역기업과 위원회, 특히 도서관위원회와의 Partnership을 통해 도서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술, 보건, 정보통신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자원의 개발을 통해 도서관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 단체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청중에게 도달하는 플랫폼처럼 도서관을 사용할 수있다.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인 Partnership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보존활동 및 현지 언어 아동문학의 생성촉진과 같은 도서관의 벽을 넘은 Lubuto의 일에는 디지털화 프로젝트로 출판사와 도서관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잠비아 교육출판사와 독특한 파트너십이다.

이 세션은 Lubuto도서관의 파트너간 파트너십과 이용자의 삶 안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Lubuto도서관을 풍성하게 만드는 파트너십을 통해 확장된 협력체 및 다양성에 관해 설명한다.

## 2) 그곳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쇼핑센터이다-서비스광장의 도서관 / 핀란드, Espoo City Library

역동적 파트너십은 핀란드 Espoo에서 열렸던 Service Square의 키워드이다. Service Square는 ISO Omena쇼핑센터의 확장선상에 위치 할 것이다. 매일 300명이 방문하는 Library Apple은 이동 및 방문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 도서관은 서로 다른 파트너 사이에 위치한다. 보건 복지부는 우리 미래 도서관의 주요 목표이다. 현지 어린이 섹션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독서와 미디어 교육의 촉진뿐만 아니라 부모지원, 강화된 상호작용과 언어발달을 이미 목표로 하고 있다. 만남과 무료운영은 더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춘 Service Square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Library Apple은

안전, 활성화, 청소년을 위한비상업적 주변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십대에게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쇼핑센터 직원, 청소년자원봉사자, 경찰들에게 긴밀하게 일한다. 여러 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서관을 재현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운영 모델키를 알아낸 Espoo City 도서관과 시작되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의 한 측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Customership이 항상 미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학교 및 음악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한다.

3D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 젊은 고객들을 매료 시키고 있다.

## 3) 파트너십 : 도서관을 위한 성공전략 / South Africa, Rocklands Library

이 프로젝트는 파트너십의 공동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세계를 변환하고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방법을 증명한다. 현대자금 조달의 제약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협력 및 기타 지역단체, 지역사회 및 기업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다.

각 공동도서관은 봉사할 다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필요를 가진다. 도서관의 예산이 성장의 필요와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므로 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

도서관서비스의 질은 비재정 지원 명령 때문에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다.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임무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개인별로 자원의 접근을 지원하는 것과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청년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적, 혁신적, 고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관계는 고립된 실체로서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을 필연적으로 초월한다.

도서관은 더 이상 진공 또는 어두운 구성에서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에이전시, 기관, 단체와 창조적인 파트너를 위한 그룹들은 함께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함께 일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 **3] Session 99. 리터러시 문제!**

**(8월 17일 (월) 13:45-15:45, Exhibition Hall 2)**

#### **1) 리터러시 : 네덜란드의 리터러시, 독서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통합적 접근 / 네덜란드**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나, 문화의 지배적인 상징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숫자·이미지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술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고 복잡한 맥락을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한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네덜란드는 어린이(청소년)를 위한 독서진흥과 문학의 도입을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하는 새로운 도서관법을 도입했으며, 새로운 국가 도서관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The Ongoing Reading Line 등을 통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프로그램, 학교·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행하고 있는 Children's Book Week(어린이 책 주간), the National Read Aloud Contest(국민 낭독 대회)은 물론 2016년~2018년에 걸쳐 여러 부처들이 독서진흥과 문맹방지를 위해 함께 기금을 만들고, 성인 문맹과 싸우기 위해 지자체·도서관·실업센터·회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인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었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 방법으로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네덜란드의 모습은 부럽기도 했다.

#### **2) 리터러시 문제! 특수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리터러시와 독서 요구 Helle Mortensen: IFLA상임위원회, 특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IFLA 도서관 서비스 / 덴마크**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혼자 가서 책을 읽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든 도서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가기 힘든 곳이다. 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독해능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인지장애로 인해서 현재의 도서관 시스템에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이나 감옥에 있거나 집이 없는 경우, 혹은 몸이 아파 집에 있거나 다른 시설에 있는 경우, 청각장애가 있거나 난독증이나 치매가 있는 사람



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 좋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접함으로써 성장하고 변하고 영감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이런 영감과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독서와 같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권이다. 특수 요구를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리터러시와 독서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읽기는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하다. 읽고 쓰는 능력은 단순한 지적 기술이 아니라, 깊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읽고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 참여나 발전 심지어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킨다.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다른 자원들, 서비스들과 제품들을 만들어서 특별 요구를 지닌 이용자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특별 요구는 종종 전문적 다른 기기들을 요구한다. Easy to easy 책들이나 오디오북, 혹은 큰 글자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읽기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다른 독서도구들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E-book이나 오디오북, DAISY북 등 대체 도구들을 이용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IFLA 섹션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LSN) 상임위원회는 IFLA 리옹 선언을 착수함으로써 이 아젠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조약 가맹국이 500국이 넘었다. LSN은 리옹 선언이 특수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리터러시와 독서가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 **V** 도서관 견학

### **1**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Cape Town Campus)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은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1976년에 인쇄된 가장 오래된 현존 인쇄 문서인 Ritter의 연감 중 한 페이지를 소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소장자료가 가장 많은 도서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이용시간은 월-금 09:00-17:00, 수 10:00-17:00 아프

리카 원주민에 관한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는 물론 전자자료까지 합하면 약 300만 점에 달한다. 소장자료는 도서, 정기간행물, 정부간행물, 국내외 출판물, 희귀본, 지도, 아프리카 신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CD-ROM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표 컬렉션으로는 아프리카나 컬렉션과 그레이 컬렉션이 있다. 아프리카나 컬렉션은 케이프타운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다양하고 진기한 컬렉션으로, 17세기부터 유럽 여행자들의 눈에 비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동식물에 대해 기록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레이 컬렉션은 조지 그레이 경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식민지 관리자로 재임하던 시절, 당시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남아프리카 초기 간행물부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중요한 자료로는, 1796년 케이프타운의 달력과 1802년에 만들어진 시 등, 초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된 출판물과 고판본 119점 그리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필사본 117점 등이 있다. 필사본 컬렉션은 남아프리카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개발 등의 기록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 컬렉션으로는 1910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과 미국, 캐나다, 벨기에, 독일, 호주 등의 해외 정부간행물, 그리고 국제기구의 간행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개인들이 기증한 수많은 컬렉션이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쟁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를 위한 눈높이 시설과 온라인 검색 서비스 국립도서관의 여러 열람실 중, 일반열람실은 156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32개의 좌석은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좌석이다. 14개 좌석은 하드카피 신문이나 대형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좌석으로 되어있다.

멀티미디어실과 이슈 홀에서는 도서관의 인쇄자료 온라인 목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32대의 컴퓨터를 통해 국립도서관 온라인 목록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컴퓨터 한대는 고품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형 모니터와 키보드에서부터 컬러 모니터와 CCTV 텍스트 확대기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슈 홀 안에 위치한 안내 데스크에서는 자료의 위치, 복사 서비스, 목록 사용 등 도서관 이용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② 센트럴도서관(Central Library)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트럴 도서관은 시내 한 복판 올드 드릴(Old Drill Hall)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여러 층으로 된 웅장한 건축물의 공공도서관이다. 어린이도서관, 공연예술과 음악도서관이 있는 가장 큰 공공예술도서관이다. 주제별로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 센트럴도서관은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제별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주제마다 각각 자료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등등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자료실이 있고 한 뮤지션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코너도 있다. CD-ROM, DVD 등 많은 전자예술자료들을 이용자에게 대출하고 있다.

어린이실에는 스토리텔링방이 책 속의 그림과 잘 어우러져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에도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작은 소품들로 케이프타운을 나타내고 있고 벽면 마다 동화속의 테마를 그림으로 벽면 공간구성을 하여 어린이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층 별로 하나의 큰 홀에 여러개의 작은 코너가 있고 세미나실, 토론실 등은 별도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대존, 와이파이존, 인터넷코너 등 영역별로 구분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곳곳에 손으로 만든 남아프리카 지도 모형, 트랜스포머 등 그 지역을 나타내는 모형을 설치하여 적당한 조형물들로 색다른 재미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며 ‘세계 책의 날’ 행사 사진 등을 부착하여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에서 패션쇼라는 것이 이례적인 행사인데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어린이 패션쇼 행사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개관 시간을 요일별로 다르게 운영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사서가 다같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부럽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갖게 했다.



### ③ 책 센터(The Centre for the Book)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의 아웃리치로, 국가 기념물로 지정된 에드워드 7세 시대 건축물 안에 위치해 있으며, 독서문화와 글쓰기, 출판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자료축적 기능보다 건축물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유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크다.



### ④ 하라레도서관(Harare Library)

케이프타운 시티 공공도서관으로 십대들을 위한 게임 공간과 펀다 우들라레(Funda Udlale)라고 알려져 있는 유아 공간 등 독특한 공간으로 유명한 도서관이다. 마침 방문했을 당시 거브 잡잡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선생님 앞에 둘러 앉아 읽어 주는 책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유아개발 학교와 파트너를 맺어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텔링 및 기타 흥미로운 게임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화 자료들을 비치하여 대출해 주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환기 시설과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지어진 도서관이다. 도서관 개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된다.



## 5 엘지스리버도서관(Elsies Library)

케이프타운 시티 도서관으로 엘지스 강 가까이에 있는 엘지스리버도서관은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는 도시의 빈민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서관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규모는 작아도 2015년도 상반기 도서 대출이 4만권이 넘어섰고 방문객 수가 88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방문했을 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방문단을 열렬히 환대해 주었고, 엘지스리버도서관 직원들이 어린이들로 구성된 공연단을 만들어 경쾌하고 예쁜 춤 솜씨로 방문단들에게 공연을 보여 주었다. 점심식사도 엘지스리버도서관에서 준비하여 방문단 전원에게 제공해 주었다.



## 6 벨빌도서관(Vellville Library)

케이프타운시립도서관으로 케이프타운 전시민을 아우르는 규모가 비교적 큰 공공도서관이다. 케이프타운 시 전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서비스하는 벨빌도서관은 자료실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하고 있다. 정숙해야 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중학생들이 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와 닿기도 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일반인을 위한 자료실 공간이 복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어린이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추어 공간배치가 잘 정돈되어 있다.

음악, DVD 등 자료들을 보유하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기능도 하고 있다. 미술품 전시실이 따로 있어 그림과 예술작품을 전시도하고 판매도 하고 있다.

도서관 개방시간은 월-목요일은 10시부터 17시 30분, 금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스토리텔링이 운영되고 휴일 프로그램은 6월에서 7월까지, 9월에서 10월까지, 12월에서 1월까지 운영된다.

부모 & 어린이 약물 프로그램을 매월 1일 이루어지고, 청소년 독서클럽은 오후 3시에 있다. 회원카드 발급은 케이프타운에 거주하지 않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R20을 지불하여야 한다.



## VI 참가소감

제 81차 2015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개최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직항이 없어 환승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터키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비행시간 11시간 50분, 환승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6시간, 이스탄불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비행기로 9시간 40분,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탑승자를 위해 1시간을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대기, 요하네스버그를 비행기로 출발해서 케이프타운까지 2시간 20분을 비행하여 멀고 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였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편도 31시간, 왕복 3박이 걸린 지루한 시간으로 도서관 발전위해 몸소 뛰는 모두들 용감하고 대견한 도서관 봉사들이었다.

설레임 속에 찾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과 컨벤션센터내에서 개최된 WLIC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계의 글로벌 행사로서 개최 규모와 내용면, 여러가지 준비 상황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규모와 친절함 등이 돋보이는 행사로 치뤄졌다.

대회기간 중 3천여명의 참가 등록자가 일주일 이상을 함께 모여 도서관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도서관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케이프타운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에 참가하여 보고 느낀점은 첫째, 의사소통을 이루는 언어소통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점이다. 대회참여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국가의 단체나 도서관과의 교류 행사인 만큼 세션에 관한 주제들을 사전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공유하는데 훨씬 유익하다는 점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 한가지 정도는 소화 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꼈다.

둘째, 우리나라 도서관을 세계에 내 놓아도 뒤쳐지 않을 만큼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도서관계와 사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하여 발전된 우리나라 도서관을 세계에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 결과물을 가지고 IFLA 대회에 참여하고 발표하여 세계의 도서관들이 주목하고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국도서관협회 또는 공공도서관협회는 IFLA 대회에서 발표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IFLA 대회는 도서관계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세계 각국의 홍보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도서관 건물, 전산화시스템 등의 외적인 인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해 한국의 비교적 좋은 상황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의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서 스스로도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키우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도서관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오리라고 생각이다.

넷째, 진정으로 도서관과 사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도서관 본연의 업무 및 정보서비스 위주의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자기 수험나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공부방처럼 이용하는 한국의 이용자들의 형태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가진 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었다. 도서관 디자인, 다문화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노년을 향한 서비스, 커뮤니티 등에 대한 관심이 컸고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을 도서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도서관 환경과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티 등으로 결론은 좁혀지고 이어졌다.

여섯째, 도서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전략으로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가 심화되어 가는 방향을 느낄 수 있었다. 변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는 웹페이지를 통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와 시설 이용을 위해 도서관을 찾아오는 시간이나 도서관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나가는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참관하고 사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사서는 이용자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

교육과 정보를 ‘공공’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 만든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연령·학력·경제력 그 어떠한 조건에도 소외되는 사람없이 누구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공공도

서관의 역할이다.

나라의 국력은 문화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독서지식기반사회를 이뤄가는 도서관 문화의 가장 큰 힘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도서관이 발전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을 비롯하여 어려서부터 누구나 도서관과 어울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가야 될 것이다. - End -

## 2015년도 IFLA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 등록자 지급품

